

광주 소매·유통 경기전망 여전히 먹구름... 2분기 연속 끄끄

고금리 등 대내외 여건 영향 구조조정 등으로 비용 개선 운영비 등 비용절감 절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 1분기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먹구름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75'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명절특수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내수침체, 물가·금리 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뜻한다.

경영항목별로는 매출·수익 항목(75)은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감소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전망치가 하락했다.

고용항목(96)은 근무시간 축소 및 인원 감축, 퇴직자 미충원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용항목(128)은 구조조정 및 관리비용 축소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별로는 대형마트(150)는 명절

및 신학기 특수와 온라인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기대로 체감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백화점(55)은 동절기 고가제품 판매 확대 및 명절특수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점(64)은 무인 점포 확산과 편의점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경기가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45)은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감소, 편의점과 대형마트와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더욱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건비·운영비 등 비용절감(48.9%)', '온라인 사업강화(31.9)', '프로모션 강화(25.5%)', '점포리뉴얼(12.8%)', '상품개발(8.5%)', '배송 경쟁력 강화

(8.5%)', '오프라인 출점(4.3%)', '유통 신기술 도입(2.1%)', '없다(12.8%)'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활동 시 가장 큰 현안 및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1.9%가 '비용 상승(인건비, 금융, 물류비 등)'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소비위축(29.8%)', '소비자 물가 상승(17.0%)', '상품 매입 원가 상승(14.9%)', '시장경쟁 심화(6.4%)'라고 응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금리와 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2분기 연속 침체를 겪고 있다"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들의 대응 전략 마련과 민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광주=김종식 기자 skjong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주낙영 경주시장(가운데)이 '제2급장교 조성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주낙영 경주시장

대형 공사장 찾아 안전 챙기기

주낙영 경주시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6일 대형공사 현장을 돌며 시설 점검은 물론, 취약 지구 안전 챙기기에 나섰다.

먼저 주 시장은 흥무로 도로개설 현장을 찾아 동대병원 인근의 중앙산 횡단구간의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시도로 개설을 지시했다. 또 주 시장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동대유치원~동대교' 865m 신규 개설 구간 착공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구간은 2021년 8월 개통한 '금장사거리~동대유치원' 560m 구간의 연장사업이다.

총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되면서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착공 예정이며 개통은 내년 말이다. 이어 주 시장은 제2급장교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영주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 영주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복지, 환경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올해 바뀐 새로운 정보들이 수록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부서에 배부했다.

한편 책자에서는 중앙부처의 8개 분야 65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가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대구시의 협약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시스

"건강권 뺏는 대형마트 규제완화 규탄"

마트 노조, 규탄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협박"

죽이는 '살생 협약'을 파기하라"며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마트 노동자들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협약을 두고 "노동자·소상공인 생존권 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 노조는 "지난해 말 대구시와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일부 상인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윤 정부는 나아가 심야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이하 마트 노조)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상인 모두를

이어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제한 해제는 마트 노동자들을 휴일·야간·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협박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종식 기자

부산시, 철도역 등 6곳

'기후대응 도시숲' 만든다

광장·도로 등 포장지역 주변에 조성 미세먼지 생활권으로 유입 차단



오시리아관광단지 미세먼지차단숲

부산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 등 6곳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된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업내용을 확대한 사업이다.

도심 내 대규모 숲을 조성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고 광장 및 도로 등 포장지역 주변에 숲을 조성해 도시열섬을 완화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천항,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 19곳에 23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철도역,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등 6곳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15ha의 기후대응 도시

숲을 조성한다.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할 곳은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 철도역(5곳)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강서구 화전일반산업단지 ▲기장군 좌천역 폐선부지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 ▲기장군 일광이천 생태공원 등이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ha의 도시숲(10년생)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숲이 미세먼지(PM10)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천시, 청년농업인에 정착지원금 지급

조건에 따라 3년간 월 90~110만원

경영(경영주)3년이하 또는 예비 농업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천시는 농업·농촌의 근간이 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오는 1월 27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와 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만18세 이상 만50세 이하(1972.1.1. 이후 출생)인 독립경영(경영주) 10년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기계 구입을 위해 세대 당 최대 5억 한도로 1.5% 금리에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업을 갓 시작한 청년에게 조건에 따라 3년간 월 90~110만원을 지원해 소득이 불안정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1983.1.1. ~ 2005.12.31.)인 독립

고창군, '공동주택' 올 가을 입주 시작

LH임대주택 398호

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128호를 비롯해, 고수면 150호, 무장면 120호가 입주한다.

민선 8기 고창군이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해 인구유출을 막고, 주택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2~3년새 지역내 신규 아파트 신축이 없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이사가전업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여러 민간기업에서도 공동주택 건설·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르면 올 가을 고창지역에 LH임대주택 398호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고창읍 울계

3월에는 고창읍현대아파트 앞쪽의 광신주택(260호), 터미널 회전교차로 주변의 읍내리 주상복합(56호)도 공사를 시작해 바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동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6월 준공 후 바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 첫 여성 119구조대장 탄생 강진소방서 김미라 소방경

강진소방서는 전남 최초로 여성구조대장으로 김미라 소방경을 임명했다. 김미라 119구조대장은 1996년 10월 전남 2기 구급대원으로 소방에 입문했으며 23년간 화재, 구조, 구급현장 활동과 함께 3년 동안 예방행정업무로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전남 최초 첫 여성 119구조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장은 구급대원으로 활동중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 하트세이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소방청이 주최한 안전분야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위문장상을 수상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